

좌약주 ·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증가세

국민연금 국정감사

‘술·담배·도박’ 좌약주 투자총액 4조6000억원 육박
전범기업 투자, 지난 6월 현재 1조5200억원으로 ↑

남인순 의원 “좌약주·전범기업 투자 명확한 근거로
제한할 수 있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기준’ 개선해야”
김광수 의원 “국민 60%, 日 전범기업 투자 제한 원해”

국민연금이 술·담배·도박 사업인 ‘좌약주’와 일본 전범기업 등에 투자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주식에 대한 좌약주(S 술·담배·도박) 투자는 2018년 2조 1834억원으로 20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해외주식에 대한 좌약주 투자는 2018년 2조4113억원으로 2016년 대비 약 22%가 증가해 좌약주에 대한 국내·외 주식 투자가 총 4조 6000억원에 육박한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주식은, ‘술’에 대한 직접 및 위탁 투자 지분, 평가 금액이 줄었다. 그러나 ‘담배’는 2016년 말 기준 직접 및 위탁투자는 1조2000억원에서 2018년 말 1조4000

억원 가까이 증가했으며, ‘도박’은 2016년 말 6392억원에서 2018년 말 7079억원으로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좌약주에 투자한 주식의 총 평가금액은 2016년 말 1조 8389억원에서 2018년 말 2조1834억원으로 2년 동안 약 20% 가까이 투자가 증가했다.

좌약주에 대한 해외주식 투자 또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담배와 술에 각 1조원이 넘는 등 총 2조4113억원의 규모로 투자되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4개 전범기업 주식 종목 7600억원에서 올해 6월 현재 73개 종목 1조52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이 가장 많이 투자된 기업은 강제동원 기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2014~2019.6)〉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6	
해외주식	평가금액	566조	699조	856조	1082조	1129조	1453조
	종목수	4,647개	5,197개	5,221개	5,319개	5,174개	5,374개
일본주식	평가금액	39조	52조	60조	76조	74조	90조
	(전체 대비비중)	(6.9%)	(7.5%)	(7.0%)	(7.0%)	(6.6%)	(6.2%)
	종목수	664개	735개	707개	701개	686개	623개
전범기업주식	평가금액	0.76조	0.93조	1.19조	1.55조	1.23조	1.52조
	(전체 대비비중)	(1.4%)	(1.3%)	(1.4%)	(1.4%)	(1.1%)	(1.1%)
	직접	0.23조	0.40조	0.57조	0.74조	0.66조	0.81조
	위탁	0.53조	0.53조	0.62조	0.81조	0.56조	0.72조
종목수	74개	77개	71개	75개	75개	73개	

**자료: 국민연금공단(2019년 8월)

업인 ‘도요타 자동차’로 2896억원을 투자했으며, 보유 지분으로 보면 역시 강제동원 기업인 ‘나루라 조선’에 0.52%의 지분을 국민연금기금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남 의원은 “좌약주, 전범기업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심지어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직 국민연금이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존의 책임투자 방식보다 훨씬 진일보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 60%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9월 26~27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5%가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서부터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농촌진흥청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한-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이하 AFACI) 기초농업, 식량작물 및 축산 과제 평가회’를 열었다.

아시아 농업 발전 위한 연구자 역량 강화

농진청, 태국서 AFACI 기초농업·식량작물·축산 과제 평가회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한-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이하 AFACI) 기초농업, 식량작물 및 축산 과제 평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13개 회원 국가 참가한 이번 평가회는 3개 완료과제(유기농업기술개발, 이동성병해충, 가축유전자원)와 계속과제(농산물가공기술개발)를 평가하고 성과를 도출,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종료되는 3개 과제의 최종 성과와 회원 나라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동성병해충 과제 성과로는 웹기반의 아시아 이동성병해충 기술정보 교류 시스템(AMVS)을 구축, 아시아 지역내 이동성병해충 발생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방제에 활용하고 있다.

유기농업 기술 개발 과제 성과는 퇴비 제조, 병해충 관리 등 핵심 기술을

종합한 모델 마을을 회원 나라에 1곳 이상 만들었다. 가축유전자원관리 과제 성과로는 회원국 재래가축(소, 닭)의 유전특성 분석으로 회원나라 재래가축의 유전관계를 추정하고, 재래가축 보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 과제는 지난해 6월 FAO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에서 개도국 지원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 이지원 기술협력국장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올해 마무리되는 과제의 최종 성과를 정리해 KOPIA와 국제농업개발협력 유관기관에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라며, “회원 나라의 농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역량 강화에 핵심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AFACI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다자간 협의체로, 아시아 13개 회원나라와 농업 연구기술 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1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제20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해외 9개국 바이어·도내업체 대상 1067만불 성과

도-경진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성황리 열려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지난 1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제20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경진원의 베트남 통상거점센터 및 해외거점 파트너사를 통해 발굴된 9개국 21개사 바이어와 50개 도내업체의 1:1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61건의 상담을 통해 1067만불의 상담성과를 냈다. 수출상담회에는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산업소비재, 특장차,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바이어와 도내 기업이 참여했다.

전북도와 경진원이 꾸준히 운영해

온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는 전라북도 중소기업이 해외 유력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 연간 약 15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대규모 초청상담회를 총 4회 운영해, 45개국 95개사 바이어와 도내기업 252업체 간 851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이란·중국·베트남 등에 1078만불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바 있다.

경진원은 상담회와 함께 2019 한·인도 CEPA 활용 인도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운영해, CEPA 활용 정보 제공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인도 수출에 필수적인 인증, 상표권, 박람회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또한, ‘제4회

중소수출기업 협의회’를 함께 운영하여 수출 우수기업과 영세·초보기업 간 멘토링 및 수출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제공하여 수출 초보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수출상담회가 글로벌 경기 하락으로 수출 부진에 직면한 도내 중소제조기업의 해외 진출과 전북 수출산업의 활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세계 강국의 무역전쟁으로 수출여건이 좋지 않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중소기업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美 하원 찾아 개성공단 재개 위한 활동 지속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미국 LA에서 브래드 서먼 미 하원 아태소위원회장을 만나 12일(현지시간) 10일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6월 11일 개성공단 재개 설명회를 위해 미하원을 방문해 브래드서먼 아태소위원장을 만나 12일(현지시간)에 열리는 미주민주참여포럼(대표 최광철)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하는 브래드 서먼 위원장을 만나 개성공단이 국제제재에서 면제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미 의회의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14일(현지시간)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회장 하용화)가 개최하는 제24회 한인경제인대회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들과 유관기관 등 1천여명 넘는 기업인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한인 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 간 수출관료 개척을 위한 상담회도 진행된다.

16일(현지시간)에는 니나 하치기안(Nina Hachigian) LA시 국제부문 부시장과 간담을 나누는 한편,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투자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한다.

중기중앙회는 미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를 전달하고 LA시와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국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11개사를 파견하여 라스베가스에서 현지 바이어와 매칭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라스베가스에서는 OKTA와 협력해 상담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가을 맞아 ‘JB카드

Yolo Autumn 페스티벌’ 시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가을 시즌을 맞아 ‘JB카드 Yolo Autumn 페스티벌’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온라인(홈)쇼핑, 해외 가맹점, 고속열차(KTX, SRT) 이용시 가을 시즌에 맞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채널을 통해 JB카드 번호를 입력한 후 일괄 참여 할 수 있다. 행사 내용으로는 온라인(홈)쇼핑 이용시 최대 2만원 모바일 쿠폰과 해외 가맹점을 이용하면 최대 1만원의 현금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은 JB카드 로 월누적 5만원 이상 고속열차(KTX, SRT) 이용시 최대 5% 상당의 현금 리워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행사는 11월말까지 진행되며, 행사별 대상 카드 및 상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콜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bank.co.kr), 뉴스마트 뱅킹 어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이 외에도 도내 3대 명산인 덕유산, 대둔산, 내장산 케이블카를 이용할 때 JB카드 현금 리워드 혜택과 BC페이북 QR결제 대상 가맹점에서 QR결제로 건당 2000원 현금 결제시 500원씩 일 3회까지 현금 리워드가 제공되는 이벤트도 10월말까지 진행 중이다. 편의점, 마트 등 가맹점에서 QR결제를 이용한다면 매일 1500원씩 할인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남원농협, 농촌 들녘 가꾸기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8일 농협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확산하고 농촌마을 주도의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천면 내송마을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위한 들녘 가꾸기를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농업용 드론을 이용하여 7ha 농경지 및 농경지 주변에 헤어리베치, 수레국화 종자를 살포했으며, 헤어리베치, 수레국화는 겨울을 지나 내년 5월 경 개화해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올 하반기 수출유망중기 신청·접수

전북중기청, 내달 8일까지 선정시 20개 수출지원기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성장을 넘어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9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을 11월 8일까지 받는다.

신청자격은 신청 직전년도 또는 신청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2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20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수출금융·보증지원, 금리·환거래조건 우

대 등 77여개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신청은 11월 8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평가절차는 신청기업에 대상으로 서류평가, 현장평가, 수출지원 지역협의회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최종 지정하며 12월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09년부터 시행해온 수출유망중소기업 제도는 최대 4회(전년대비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20%이상인 경우는 5회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19년 상반기 기준 총 49개사가 전북지역의 유망한 수출유망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과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LH, 군산신역세권지구 상업시설용지 제공금

19필지로 28~31일 경쟁입찰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군산신역세권지구 내 상업용지를 제입할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급대상은 상업시설용지 19필지(835~2,080㎡)로 필지별 공급예정금액은 675~2,269백만원이고, 평균 분양가는 3.955천원/3.3㎡, 필지별 2.674~4.985천원/3.3㎡ 수준이다.

군산신역세권지구는 군산역을 중심으로 108만㎡ 부지에 총 6,904세대(호)가 건설되며, 상업, 업무, 주거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 다기능지구로 조성된다.

현재 인근에 조성중인 디오션시티와 함께 향후 군산의 부도심권의 역할을 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서해안고속도로, 장항선 철도, 국도29호선 등 도내·외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인근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영화관, 종합병원 등 도심 배후시설 또한 양호하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상업용지 중 다수의 필지는 서해바다가 조망되고 숙박시설이 가능하여 투자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대금납부 조건을 3년 무이자 할부로 완화하여, 추가적인 가격인하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급도지에 대한 입찰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28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실시된다. 입찰은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가 낙찰자로 정해진다.

기타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063-230-6105, 6416~7)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